

혼돈의 정국, 해법을 묻는다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국가권력 사유화 확실히 단죄해야

김희중 히지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은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시대가 아플 때마다 약자의 편에 서고 국가권력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맡으며 대북지원사업에도 앞장서는 등 남북평화통일 기를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24일 광주시 서구 성춘동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서 김 대주교를 만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혼란한 정국의 해법을 들어봤다.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 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 심각한 위기이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사태다. 도덕적 면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손해다. 국가 신뢰도가 높아 투자가 이뤄지는 데 국가 성장 동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해 다른 나라들은 발빠르게 외교 채널을 가동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탓에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친일파, 자유당 부역자, 5·16부역자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지어아 성장하듯이 이번 일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종교계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교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능하면 종교계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와 교회는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소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회와 인간을 위한다는 사명은 동일하다. 필요하다면 교회가 정치 질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종교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철학적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해법은 정치인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올바른 총리 선출 방안은. ▲여야의 이해득실을 극복하고 국민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 지역과 정파를 떠나서 존경받는 인물, 국민안과 민족 중흥이라는 소임을 수행할



총리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정치권이 국민 편안하게 해

종교계, 정치에 개입 않기를

최첨단 무기는 대화와 협상

남북 대화로 평화 모색 필요

수 있는 인물이 추천되기를 바란다. 교회의 경우 교황을 선출하기 전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후보의 인물됨이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정치권과 시민이 참여하는 ‘콘클라베’ 방식이 어떤가 생각해본 적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분들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대규모 촛불집회로 성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민심을 달래는 해법은 무엇인가.

▲먼저 정치권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이점을 줄이고 ‘공동선’(共同善)이라는 최대 공통분모를 도출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한다. 이미 마련된 제도와 법이 있음에도 성난 민심을 달래야할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언젠가 이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간신이 왕권을

멀멀케 한다’는 책을 봤습니다”는 말을 비서실장과 수석들에게 한 적 있다. 무조건 ‘용비어천가’보다는 잘못이나 실수를 진술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편이 문제해결의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언론이 정치감시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올바른 리더란.

▲지도자란 구성원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해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다. 나 역시도 인사나 성명서 발표를 할 때는 주변 신부들 의견을 구하고 논쟁도 할 때도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가라”는 말이 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일이 잘되게할 수 있다.

“최근 약화된 남북 관계에 대해 조언하자면. ▲무기로서 평화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영속적인 평화를 도모할 수는 없다.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평양 방문 때도 정부와 북한 당국자들에게 평화를 지키는 최첨단 무기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의 무기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방위산업 비용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통일이 되면 방위사업 비용보다 물류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 등 외부세력을 배제하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

“주교회의 향후 계획은.

▲인도주의적 대북 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퇴보한 것은 정부의 가장 큰 과오라고 생각한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과오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무조건 드러나는 실태에 대해 저주를 보내기 보다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침을 통해 보나나온 상황을 맞이하도록 바라는 마음을 갖길 희망한다. /김용희기자 kimyh@/사진=최현배기자 choi@

트럼프 시대...광주 기관들 “대미 수출 기회로”

광주시 대책회의 개최

오늘 무역회관서 세미나

광주시는 24일 김종식 경제부시장 주재로 수출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결과가 광주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장현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윤 시장은 최근 세계경제 흐름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시하고, 시와 직접 관련 있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미국 수출 등 경제적 영향, 제2차, 3차 협력업체 등의 수출변화 등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상공회의

소, 광주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 등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017년부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해외진출을 위해 광주자동차에프터마켓 협의회와 세계 유수 자동차회사 납품 연계 등을 통해 광주광역시-지방중기청-중진공지역본부 공동 수출컨소시엄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자동차, 가전 등 지역 주력 수출품에 대한 무역제세 수단으로 ‘원산지 사후 검증’ 빈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 한-미 FTA 사후검증 리스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수출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미국 대선 이후 서비스산업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산업에서는 자동차 관련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지역 수출기업의 내년도 사업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 세계경제통상전망 세미나’를 25일 광주무역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은 현재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가시화되면 자동차, 가전 분야의 수출물량 감소가 우려가 되지만 미 달러 강세로 인해 수출업체들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실감미디어센터, 차세대 미디어 개발 앞장

기업 지원·잇단 국비 사업 수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가 준공된 지 5개월 만에 고용 창출, 사업화,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센터 장비, 인력 등을 통해 게임,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등 국비 첨단사업들도 수주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24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빛가람혁신도시 내 10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35가지의 장비로 제품 테스트베드 지원, 품질 분석 및 평가 지원, 기업 및 창업보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실감미디어는 현실세계를 가장 근접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차세대 미디어로, 월등히 나은 표현력과 선명함, 현실감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말한다.

센터는 준공 후 170건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업화 지원 14건, 고용창출 65명, 지식재산권 확보 44건의 성과를 냈다. 또 42개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준공 5개월 여 만에 국비 첨단사업을 잇따라 수주하고 170건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해 실감미디어 전문인력 328명, 산업체 교육훈련 인력 369명, R&D(연구개발) 인력 34명 등을 양성하기도 했다.

센터가 거점이 돼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사업비 392억원)’, ‘2016년 전남글로벌게임센터구축사업(29억원)’ 등의 신규사업도 수주했다.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남도내 실감미디어, 문화 콘텐츠, 가상

현실 등의 산업기반이 미흡한 만큼 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인력을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미국, 중국, 우리나라 등 국내·외 가상현실(VR) 전문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감형 게임 해외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해남 ‘보리·밀 생산 확대’ 시책 최우수

전남 대표로 전국 평가 참가

전남도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농산시책 시·군 평가에서 해남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필요한 고품질·내재해성 품종 재배, 논 타 작물 재배, 보리와 밀 및 녹비작물 확대 재배 등 13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해남군, 우수상은 영광군, 강진군, 장려상은 보성군, 나주시, 장성군이 각각 받게 됐다.

해남군은 벼 공동 육묘, 공동 병해충 방제, 벼보리 환원 추진, 벼 재해보험 가입 등 대부분의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쌀 안정적 생산에 기여했다. 특히 5213ha에 맥류를 재배, 지난해보다 14% 이상 확대하는 등 다양한 농산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해남군은 2016년도 전국 농산시책 평가에 전남 대표로 참가한다.

최창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 도가 추진하는 주요 농산시책들이 일선에 적극 전파돼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 평가제를 도입했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평가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